



4면

도내 교원 59.4% "교권 침해 경험"

# 전주매일

5면

삼천 주공 3단지 재개발 소음·분진에 주민 반발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음 5월 24일) 제40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첫 삽' 뜨다

### 권역재활병원·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통합 건립 예수병원 부지 170병상 규모 권역 재활의료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이 7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전주시장, 전주시의원, 예수병원 관계자 장애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장애인과

재활환자가 지역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는 권역 거점 재활의료기관이다. 특히,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통합 건립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재활의료를 연계하는 통합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병원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764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7,103㎡ 규모로 건립된다. 150병상 규모의 입원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재활 전문 의료진료시설 등을 갖추며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북은 장애인 비율이 7.4%로 전국 평균(5.1%)보다 높지만 전문 재활의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그동안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통합재활병원이 개원하면 도민들이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권역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재활이 필요한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도지사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단순한 병원 건립을 넘어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끊김 없는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재활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7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열린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삽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공신탁 시대 열다... 국민연금,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 도입 두 달 만에 서울 등 4건 계약 성사...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공공지원 본격화

치매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신탁 서비스가 첫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울·경기·세종 등에서 모두 4건의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

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 생활필수 구입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신탁 제도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성과다. 특히 치매 환자 등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재산관리 지원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내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

하고,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의 상담 신청 또는 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시작된다. 이후 재산과 생활 여건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치매 환자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실제 첫 계약 사례 가운데 홀로 생활하는 치매 환자 김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급전 갈취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택 방문을 통해 현금성 자산과 기초연금 수급 현황, 월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초기 일부에서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공신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 여름철 도심 속 자연에서 배우고 싶 '특별한 기회'

### 전주시, 유아숲체험원 6곳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원문화센터서 '정원 탐방' 등 다채로운 강좌 마련

전주시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배우고 싶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시민 누구나 도심 속 자연에서 시원한 휴식과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과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여름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숲에서 뛰놀며 자연을 배우는 생태체험을, 성인과 중장년층에게는 아름다운 정원을 직접 둘러보고 가꾸는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특성에 맞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숲과 교감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인후공원과 혁신도시, 학산 서곡, 건지산 바위백이 등 6개 유아숲체험원에서 계절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개 유아숲체험원은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참여하는 정기반과 잔여 일정을 활용한 수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정원문화센터 실외정원은 오후 시간대에는 힙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와 여름꽃을 감상하며 더위를 잊고, 해가 지고 선선한 저녁에는 눈꽃과 별 우주행성 등 각종 조형 아래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찾아 즐기는 명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병구 자원순환복지국장은 "무더운 여름일수록 가까운 숲과 정원은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휴식처이자 배움의 공간이 된다"면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놀며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어른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랩부터, 집에서 손쉽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실용성 강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전국의 우수 정원을 찾아보는 '아름다운 정원탐방' △직접 정원을 설계해 보는 '우리 집 정원사' △실내에서 시원한 미니 워터가든을 즐길 수 있는 '슬기로운 홈가드닝' △여름철 정원식물과 야생화 △한국전통공예와 정원식물 등이다.

대표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한 정원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정원탐방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팜카밀레에서 대표적인 여름꽃인 수국의 풍성한 꽃송이를 감상할 수 있으며, 천리포수목원을 찾아 120여 종이 만개한 노루오줌(자생식물)과 연못을 화려하게 수놓은 꽃창포, 여름에 꽃피우는 목련 등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전주정원문화센터 실외정원은 오후 시간대에는 힙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와 여름꽃을 감상하며 더위를 잊고, 해가 지고 선선한 저녁에는 눈꽃과 별 우주행성 등 각종 조형 아래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찾아 즐기는 명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성인들을 위해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풍성한 여름 정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여름 숲의 나무와 땅속 생물 환경보호를 주제로 운영된다. 또한 시는 성인들을 위해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풍성한 여름 정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여름 숲의 나무와 땅속 생물 환경보호를 주제로 운영된다. 또한 시는 성인들을 위해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풍성한 여름 정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여름 숲의 나무와 땅속 생물 환경보호를 주제로 운영된다. /이만호 기자

**2026 정음 물빛축제**  
**올여름 정(#)했어!**  
 7.31.(금) 개막식 국카스텐/하이키  
 8.1.(토) 육중완밴드  
 8.2.(일) 하하&스킬  
 2026. 7.31.(금) - 8.2.(일) | 3일간  
 정음천 미로분수 및 벽천분수 일원  
 정음시